

운영자 측면에서 하이브리드가 왜 필요한지
아시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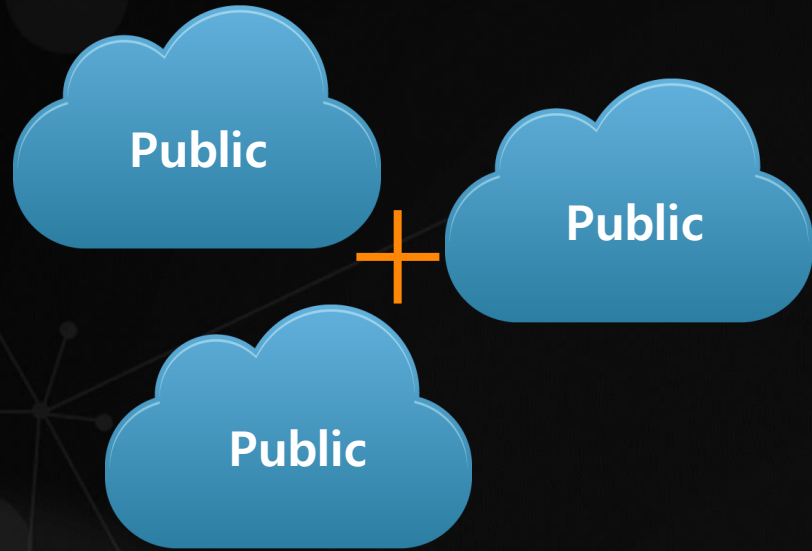
1. 하이브리드 클라우드

2.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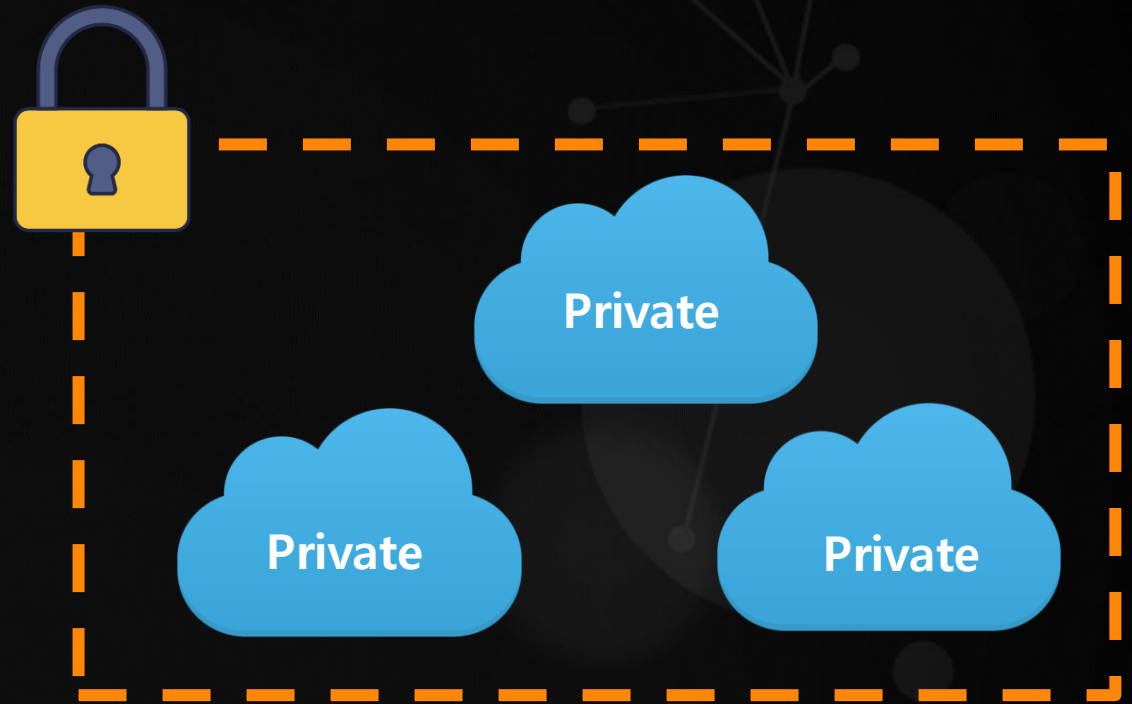
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

하이브리드 클라우드

퍼블릭 클라우드의 빠르고 편리한 확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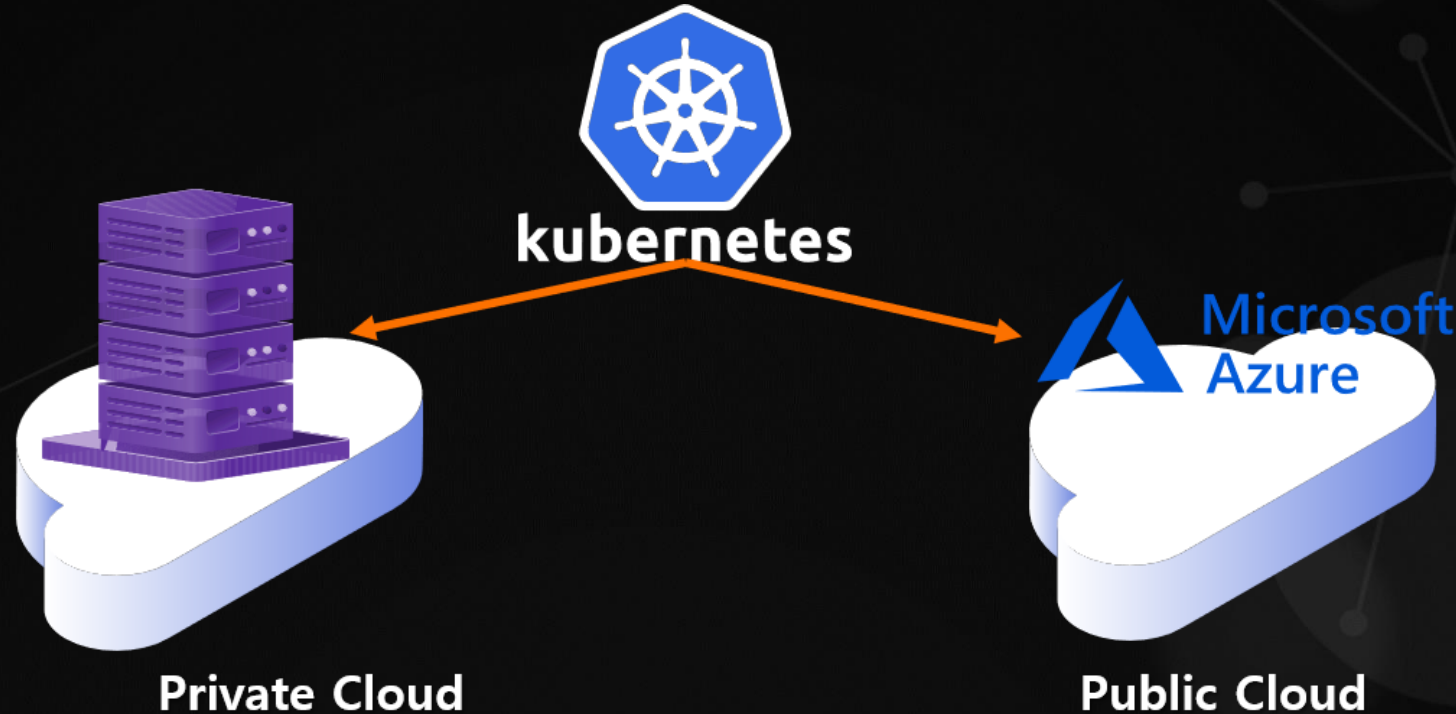
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데이터, 보안 중요성



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?



-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?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
- 다양한 퍼블릭, 프라이빗 환경에서도 개발과 실행이 가능한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이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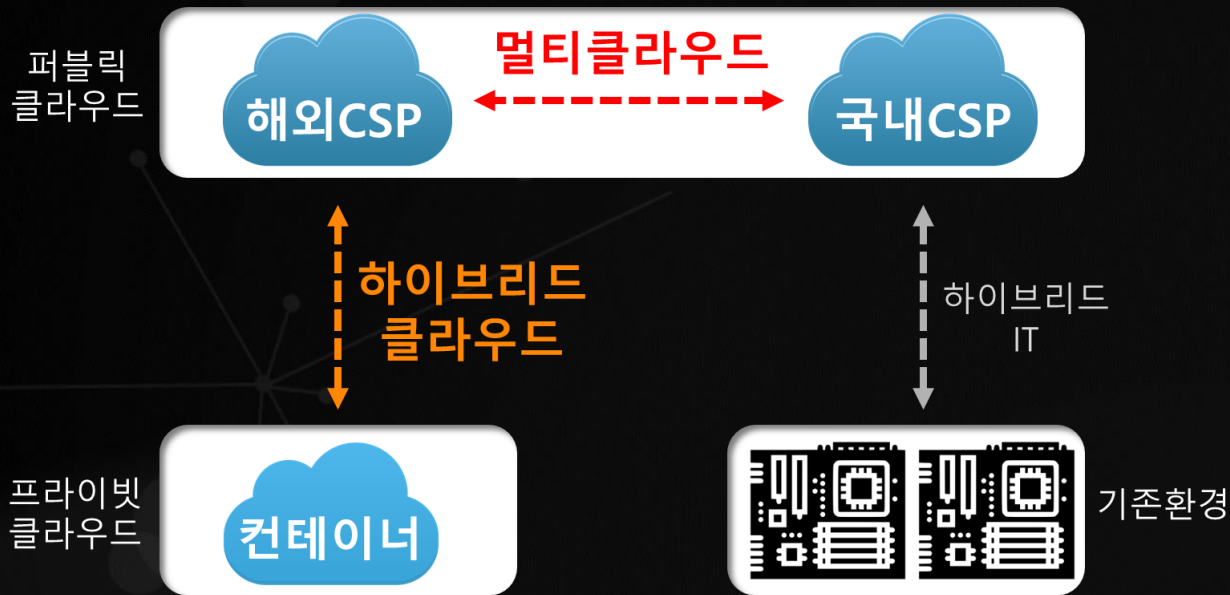


- 기업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
- 기업 내 환경/ 데이터 센터 등

- 일반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
- Amazon AWS, MS Azure , Google Cloud 등 클라우드 제공자

클라우드 이용 유형별 특징

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컴퓨팅, 프라이빗 클라우드,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를 효과적으로 혼용하는 컴퓨팅 플랫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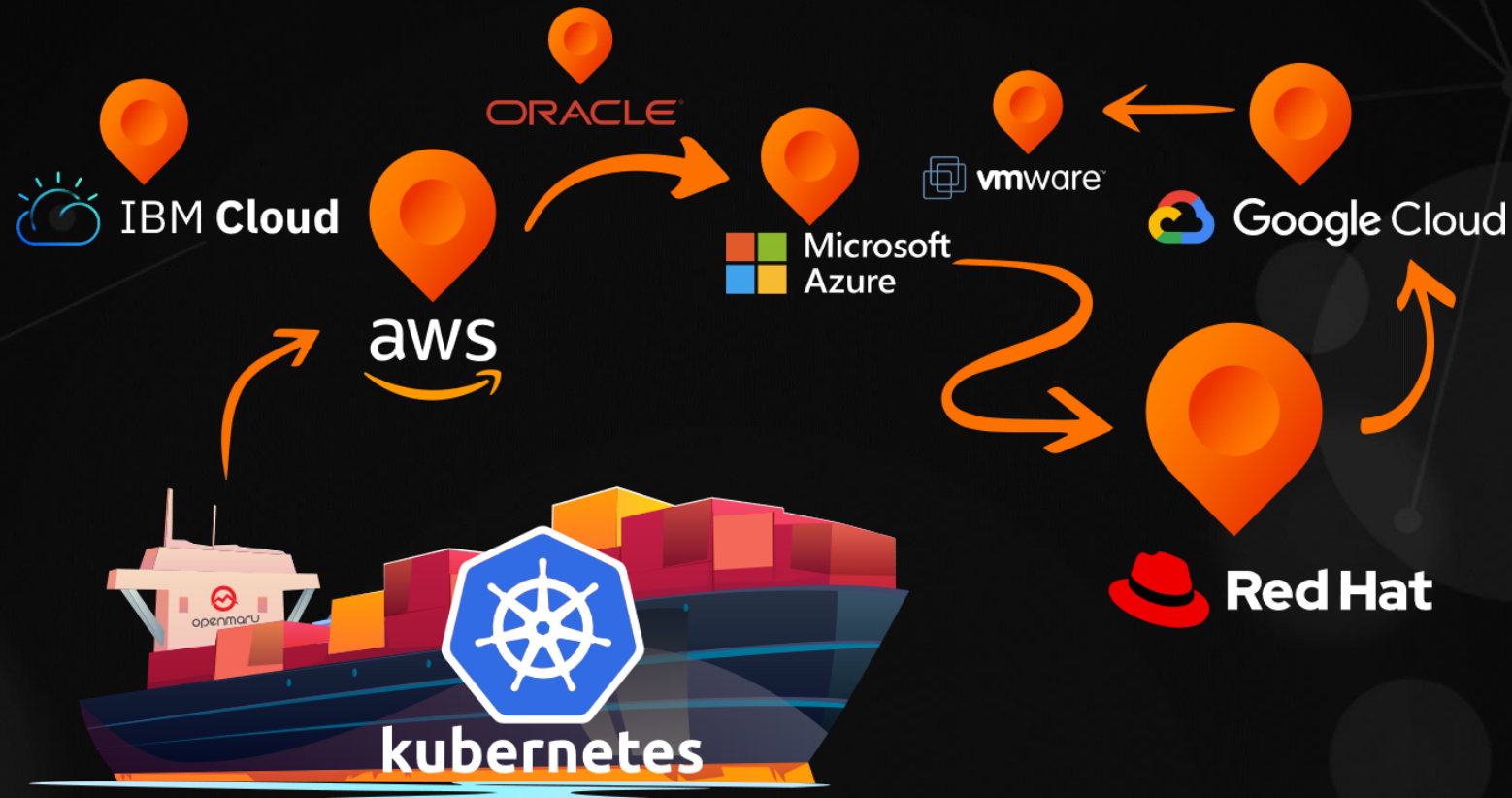


종류	특징
프라이빗 클라우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일 조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팅 리소스 제공 • 대규모, 보안이 중요한 조직에 적합
퍼블릭 클라우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서버 및 클라우드 리소스 제공 • 소규모, 빠른 서비스가 필요한 조직에 적합
멀티 클라우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방식 • 안정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분산 운영이 필요한 조직에 적합
하이브리드 클라우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장점을 모두 필요로 하는 조직에 적합 •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관리 • 가장 진화된 방식의 클라우드 이용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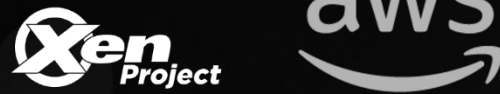
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Portability



- 애플리케이션(코드)를 어디서나 실행할 수 환경 구축
- On-Premise 와 공유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
- 요구되는 자원에 하드웨어나 클라우드 벤더에 종속 되지 않고 최적화된 환경을 선택



How does one build apps for the cloud?



Hypervisor

Public Cloud



Virtual Machine

**Write once,
run anywhere?**

클라우드의 벤더 락인 이슈



필자는 기업에게 출구 전략을 함께 가져가라고 조언, 출구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, 어떻게 옮길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

멀티/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'데이터 주권(41%)'과 '비용 최적화(41%)'였다.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'비즈니스 민첩성 및 혁신(30%)', '동종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앱 활용(25%)', '클라우드 '벤더 락인 우려(25%)' 등이 꼽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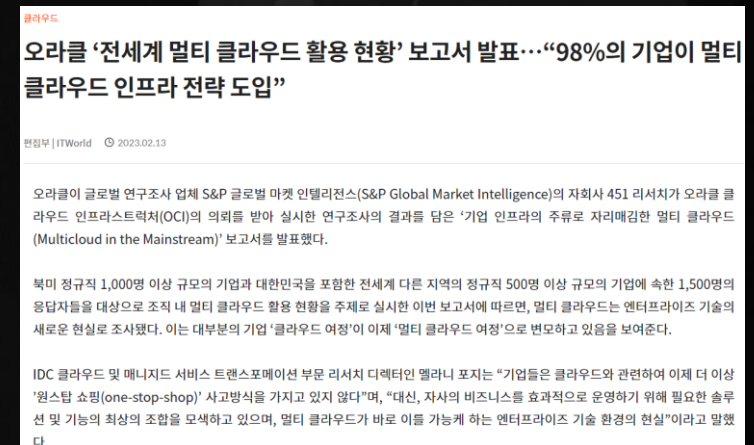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화되고 PaaS(Platform-as-a-Service) 배포 가능한 단위로 제공되어 이식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업체 락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

<https://www.itworld.co.kr/news/259900#csidx8fdc6e93cd53f209ccf28c963d42f2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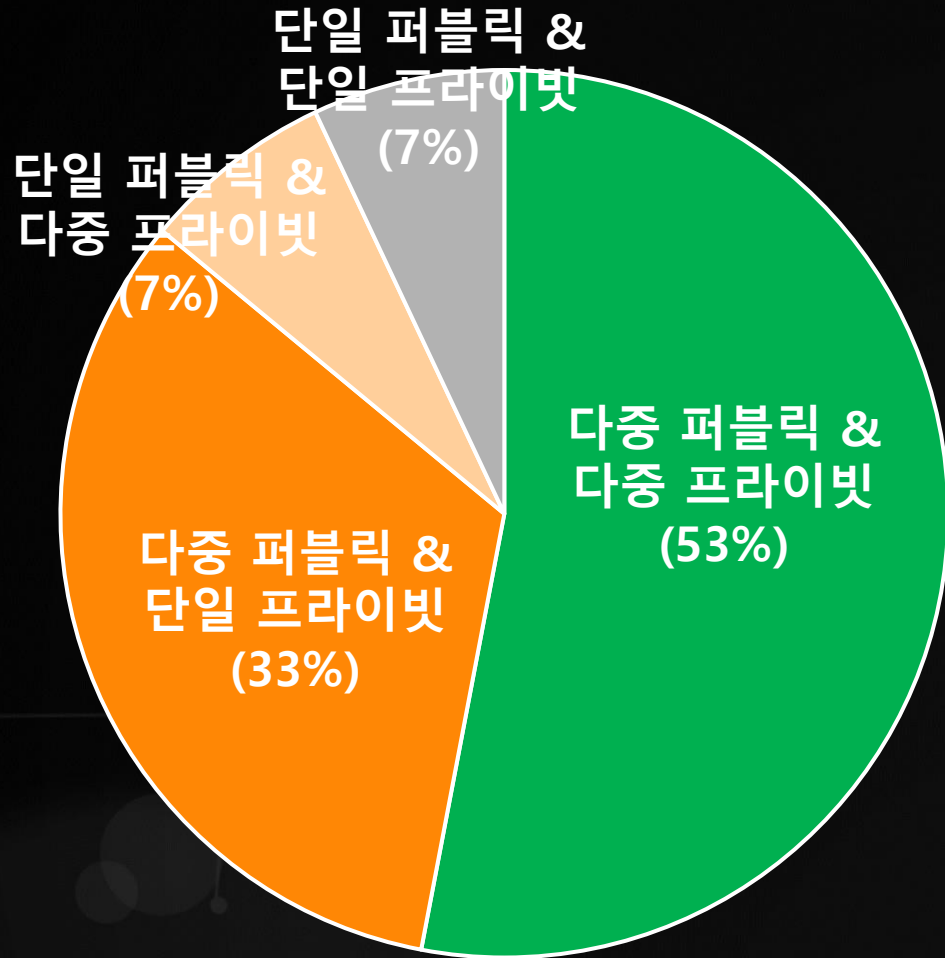


<https://technative.io/cloud-hyperscalers-dominance-and-the-risk-of-vendor-lock-in/>



<https://www.itworld.co.kr/t/34/%ED%81%B4%EB%9D%BC%EC%9A%B0%EB%93%9C/277279>

클라우드 환경은 높은 이식성이 요구됨



- 2020년 플렉세라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사용 기업의 7%만이 단일 퍼블릭 또는 단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
- 93%의 기관은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, 86%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함
 - 클라우드 간 워크로드 이식 경험이 있는 조직은 36% 수준으로 상당히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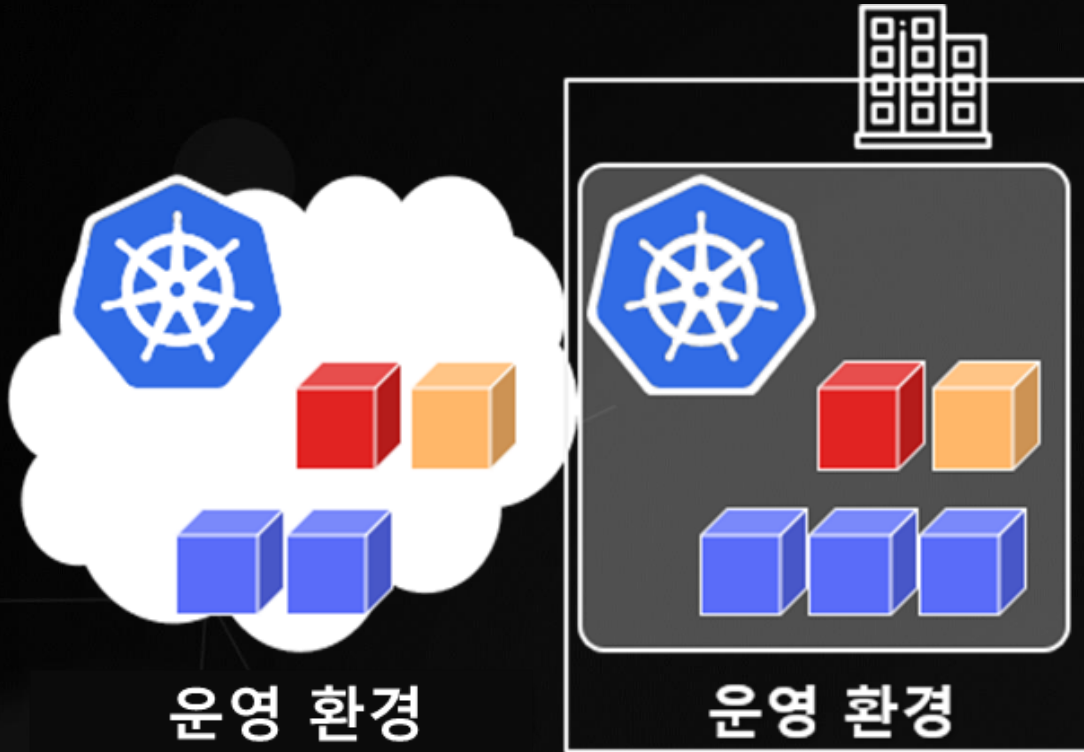
클라우드간 높은 이식성이 요구됨

출처: 플렉세라 보고서, 750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, 2020

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



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



확장성을 고려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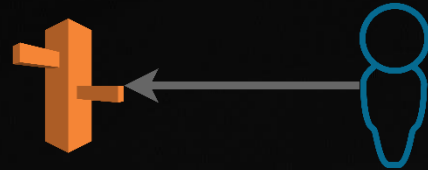
- 버스팅 이벤트를 고려한 아키텍처
- 퍼블릭 환경과 프라이빗 환경에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
- 중요 데이터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운영하고 대민 서비스와 같이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는 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가능
- 네트워크의 가중치에 따라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환경으로 라우팅

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 시나리오



Red Hat OpenShift를
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
(AWS + Private Cloud)

portal.egov.openmaru.i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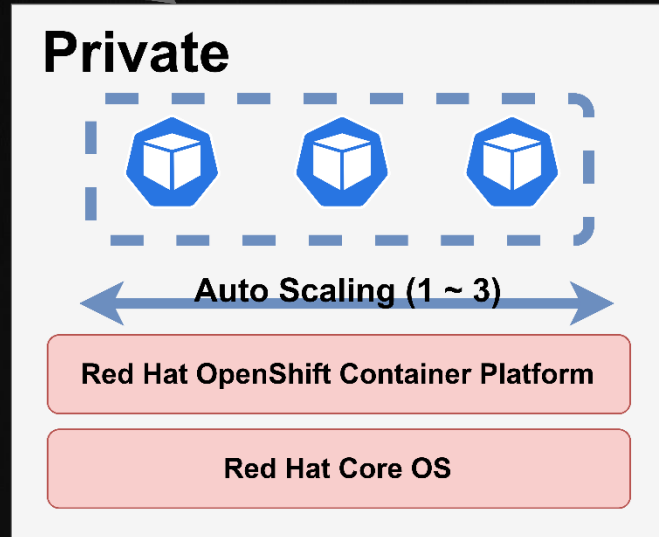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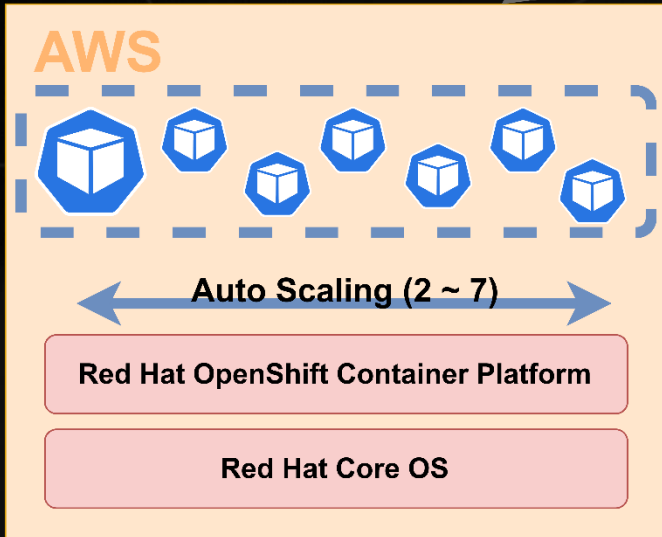


Router 53
(GSL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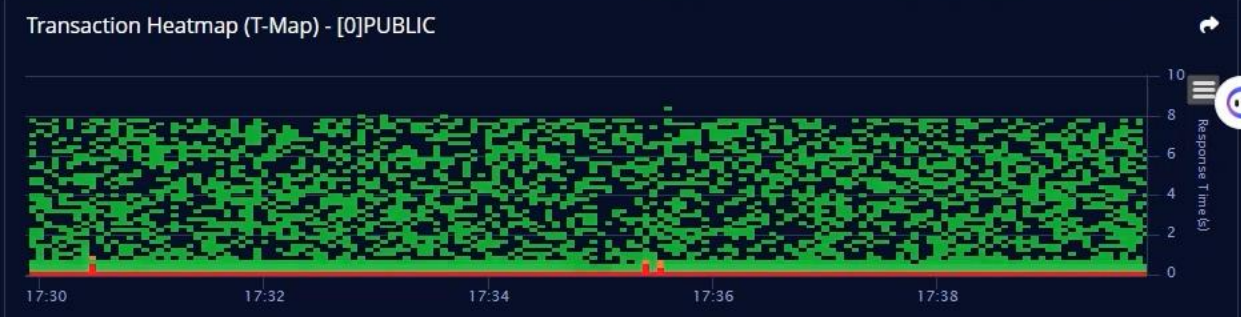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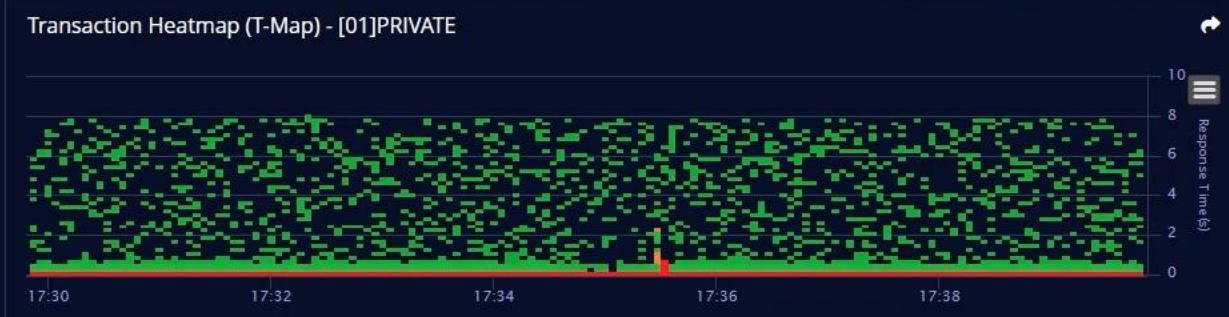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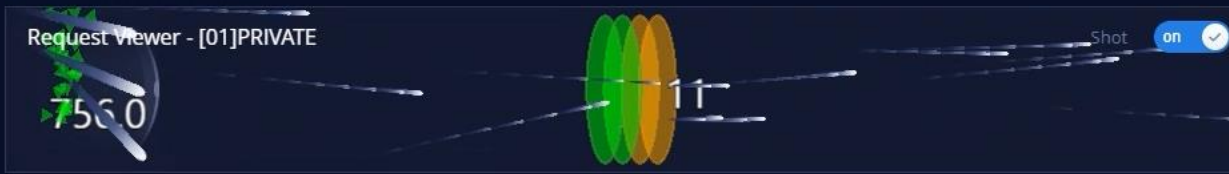
- 이벤트로 사용자가 폭주할 때 Public Cloud와 Private Cloud
동시 자동 자원확장(Auto Scaling) 데모
 -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7:3 Weight를 주어 동시에 서비스
 - Private Cloud의 Auto Scaling : 1~3개 Pod의 확장성
 - Public Cloud의 Auto Scaling : 2~7개 Pod의 확장성

public.egov.openmaru.io
Weight: 70

private.egov.openmaru.io
Weight: 30



홈 / 나의 대시보드 / EGOV





openmaru